

치 사

전법과 포교는 이 시대 불자들의 소명이며 인류를 행복과 평화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포교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벅찬 감동을 누린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이 가득합니다.

전법의 길은 자발적으로 신명나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슴 속에서 전법의 의지와 열망이 뜨겁게 타오를 때 그 길을 코끼리처럼 서슴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좌절과 절망이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법과 포교, 그것은 삭막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감로의 법비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기쁨지게 살찌우는 삶의 향기이며 이 땅에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성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시는 분들의 가치는 저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빛나고 영롱하며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포교대상을 수상하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제원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임희웅 단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원스님은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민간 후원을 통한 희망 찾기 사업, 저소득층 빈곤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여 복지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임희웅 단장님은 재가자로서 포교대상 첫 수상자이기에 그 의미만큼이나 큰 격려를 전합니다. 임희웅 단장님은 포교사단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책임 의식과 봉사정신으로 포교사단이 재가불자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공로상을 수상하는 종연스님, 금강스님, 그리고 이병인, 이영경, 이현수 불자님은 지역포교와 사회포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입니다. 종연스님과 금강스님은 포교 취약지구인 인천지역과 해남 땅끝마을에서 큰 포교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병인, 영경경 교수님은 불교환경보살로서의 역할을 잘 수

행해 났으며, 이현수 불자님 또한 직할교구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공로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다양한 포교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원력상을 수상한 열 두분의 원력보살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원력과 신심으로 우리 종단은 한층 더 발전할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의 길은 전법과 포교에 달려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웅대한 도약은 21세기 포교지평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것은 사회 구석구석을 읽어내는 문수보살의 지혜로운 눈과 중생들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음보살의 대자비, 그리고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어느 한 중생도 빠짐없이 건지겠다는 보현보살의 원행이 어우러질 때 그 값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수상하는 여러분의 노고는 소중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포교대상을 비롯한 공로상과 원력상을 수상하는 여러분들을 축하하며, 사부대중 모두가 오늘처럼 좋은 날과 행복한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21세기 포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을 높고 푸르며 뿌리 깊은 우람한 나무로 키워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10월 2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